

희롱하는 웃음은 악이
되나니 그것을 제 몸으로
행하면 울부짖으며 감음을 받고 그 행함에
따라 죄가 이른다
(법규경·악행품 210쪽)

東大新聞

본사: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2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식장동 707 (22710-2037)

제 1157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단-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가)급인격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10월 5일 (수요일) 1

교수회, 총장 선출방식 직선제 의사 밝혀

선관위 구성 위한 대의원회 소집

교수회 (회장=이승훈·법학)가 '동국대학교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에 인정한 총장후보 선출일정을 밝혔다.

교수회가 밝힌 이 일정은 지난 90년 총장선거시 적용했던 규정 그대로이며 올해 치뤄질 총장선거에 대한 모든 사항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경주 합동대의원회 이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의하면 총장임기만료일(95년 2월28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선거와 후보추천을 마치고 10월 15일 이틀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은 총장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는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1인

씩 추천해 구성된 선관위에 선거일 10일전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처럼 교수회에서 총장후보 선출일정을 밝히고 선관위 구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교수 대다수 의견으로 이해되었던, 또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직선제를 통해 총장후보를 선출하게 됐다.

이와관련해 교수회는 "총장후보의 선출은 교수회규정과 총장후보 추천규정에 입각하여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학내 제 주체들과의 선출방식 타협 가능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원대표와 학생대표에게 의견개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의

실현여부와 그 시기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선제사수 총괄기 대책위, 단식농성중

제26대 총학생회(부회장=고정환·야간경제 4)와 자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학생대책위(위원장=안진우·사범대 학생회장) 국고4 이하 대책위는 오는 6일 '총장 직선제 사수를 위한 총괄기 대회'를 갖는다.

이번 총괄기대회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책위 중앙위원들은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방식은 먼저 기부할 금액을 계약하고 장기분할로 매월 납부하는 형태로 신관회사부장은 이 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동문과 본교 관계자가 학교 발전기금을 큰 부담없이 기부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되었는데 매월 수금이 힘들었던 탓에 대외적으로는 이용되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부확보가 활발해 지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명천교수 그림기증 부친이 제작한 불화

이명천(화학공학)교수가 부친 고(故) 이수영(화백)의 1백호짜리 서양화 2점을 지난 9월28일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본부장=박동기)에 기증했다.

작품 제목은 '천상원하유아독존(석가탄신도)' '부처님열반도'이며 고 이수영화백이 인도성지순례후 불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완성한 86년도 유화이다.

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박동기)는 종전까지 본교내에서만 행해졌던 '선약정·후장기분할 기부방식'을 대외적으로 확대한다.

교양기초 수강인원줄여 내년 1학기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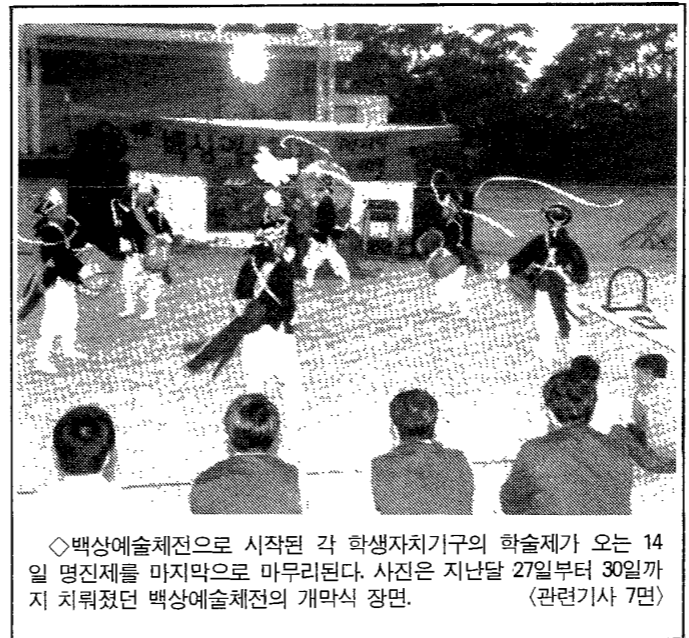
교무처 (처장=정병조·국민윤리)는 95학년도 1학기부터 교양기초과목 학급편성인원을 변경하기로 했다.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교양선택, 전공필수·선택과목을 현행의 80명기준편성에서 60명기준편성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로써 정원이 60명이 되는 과는 1개학급으로 편성되고 60명이 넘는 과는 2개 학급으로 나누어 지며 소수정원(20~30명)인 과는 60명이 넘지 않는 선으로 합반된다.

전체학급수는 주간 19개, 야간 7개가 증가되며 94개 강좌가 개설된다.

김종진 교무과장은 "수업의 질을 높이고 휴강의 빈도를 줄일 수 있으며 수업분위기 등에도 강화할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백상예술제제로 시작된 각 학생자치기구의 학술제가 오는 14일 열린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치뤄졌던 백상예술제전의 개막식 장면. (권런기사 7면)

일본 유학생 선발

국제부 (부장=이원부·정보관리)가 95년 일본 유학생단기 유학생 선발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선발된 학생은 김환수(통교3)군과 김창숙(대학원 국사학과 박사 5학기)씨 등이다.

합격자는 학비, 기숙사비전액 지원, 월10만원 장학금 지급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종무씨 우수상 수상

제1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구상 계열) 조각부문에서 본교 미술학과 강사 전종무(미술학과 81)씨가 작품 '향후의 밤, 절연의 찬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공인회계사 합격

지난 7월 7, 8일 이틀동안 홍익대에서 치뤄진 공인회계사(CPA) 제2차시험에 본교 동문 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대학소식 발행

공보부 (부장=김용철)는 95학년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대

학소식'을 오는 10월말에 3만부 발행한다.

동국 88년의 역사, 캠퍼스명소, 강의실탐방, 정치·경제·문화분야의 유명동문 소개등의 내용과 94학년도 입시결과 분석, 수험생에게 보내는 메시지 및 건강관리법을 담은 대학소식은 전국 각 고등학교에 배부된다.

또한 공보부는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 '동국소식'5호를 지난 9월26일 본교 각 행정부서에 배포했다.

이번 동국소식에는 9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및 단계·과명 개칭, 인천항방병원 개원, 국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대학은 왜 변해야만 하는가 등에 관해 소개되어 있다.

공인회계사 합격

지난 7월 7, 8일 이틀동안 홍익대에서 치뤄진 공인회계사(CPA) 제2차시험에 본교 동문 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공인회계사 합격

지난 7월 7, 8일 이틀동안 홍익대에서 치뤄진 공인회계사(CPA) 제2차시험에 본교 동문 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공인회계사 합격

지난 7월 7, 8일 이틀동안 홍익대에서 치뤄진 공인회계사(CPA) 제2차시험에 본교 동문 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공인회계사 합격

지난 7월 7, 8일 이틀동안 홍익대에서 치뤄진 공인회계사(CPA) 제2차시험에 본교 동문 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공인회계사 합격

지난 7월 7, 8일 이틀동안 홍익대에서 치뤄진 공인회계사(CPA) 제2차시험에 본교 동문 5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보리수

나찰들의 세상

나찰(羅刹:raksasa)이라는 귀신이 있다. 이 귀신은 사람의 혈육(血肉)을 먹는 무섭고 포악하기 이를데 없는 악귀다. 나찰녀(raksasi)도 있는데 이 악귀는 예쁘게 생겼지만 악독하기는 남성 나찰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본생경'에는 굶주린 나찰이 설산동자라는 수행자의 인육을 먹기 위해 아름다운 사를 읊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나찰과 같은 인간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 회대의 살인귀로 불리는 앙굴리말라(Angulimala)라는 사람이 그다. 그는 원래 선량하고 총명한 청년이었다. 그런데 그를 연모한 스승의 아내가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오히려 겁탈당할 뻔했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스승은 아내의 말을 믿고 앙굴리말라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자 엄청난 범죄를 교사(敎唆)했다.

"천명의 사람을 죽여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리라."

착한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광기어린 살인을 시작했다. 이때 사이에 그가 죽인 사람은 무려 9백 99명이었다. 그가 살인을 하고 다니는 동안 사바티(舍衛城)는 온통 공포의 도가니였다. '현유경'에는 사람들이 의술을 못하고 짐승들은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못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앙굴리말라의 마지막 범행대상

△김석원(회계 94졸) △김진화(야간회계 94졸) △김익수(야간회계 94졸) △박인숙(야간회계 94졸) △현진문(회계 94졸) 이상 5명.

△김석원(회계 94졸) △김진화(야간회계 94졸) △김익수(야간회계 94졸) △박인숙(야간회계 94졸) △현진문(회계 94졸) 이상 5명.

△김석원(회계 94졸) △김진화(야간회계 94졸) △김익수(야간회계 94졸) △박인숙(야간회계 94졸) △현진문(회계 94졸) 이상 5명.

△김석원(회계 94졸) △김진화(야간회계 94졸) △김익수(야간회계 94졸) △박인숙(야간회계 94졸) △현진문(회계 94졸) 이상 5명.

△김석원(회계 94졸) △김진화(야간회계 94졸) △김익수(야간회계 94졸) △박인숙(야간회계 94졸) △현진문(회계 94졸) 이상 5명.

△김석원(회계 94졸) △김진화(야간회계 94졸) △김익수(야간회계 94졸) △박인숙(야간회계 94졸) △현진문(회계 94졸) 이상 5명.

△김석원(회계 94졸) △김진화(야간회계 94졸) △김익수(야간회계 94졸) △박인숙(야간회계 94졸) △현진문(회계 94졸) 이상 5명.

△김석원(회계 94졸) △김진화(야간회계 94졸) △김익수(야간회계 94졸) △박인숙(야간회계 94졸) △현진문(회계 94졸) 이상 5명.

은 놀람게도 자신의 어머니였다. 광기에 눈이 뒤집힌 그가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순간 부처님이 그곳에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 대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다. 부처님이 그런 앙굴리말라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그 눈길에 살인마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을 칼을 버린 그를 제자로 삼았다.

이른바 '지존파'일당의 연쇄살인사건에 이어, 자기 나이만큼의 사람을 죽이겠다는 부처님 납치살해가 세상을 흥분하게 하고 있다. 앙굴리말라의 광란적 살인이 무서워 의술을 못하던 사바티의 사람들처럼 요즘 사람들도 의술을 겁내고 있다.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잔악한 살인을 교시했는가. 어쩌다가 나찰들이 관음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는가.

'모든 범죄는 사회적 환경의 소산'이라는 주장이 있다. 인간교육의 부재, 도덕의 동공화, 빈부갈등, 소외감이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지적이 타당하다면 그 원인을 제거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목표로 하는 종교다. 개인의 심성을 바로잡고 사회를 정화하여 불경정도(佛國淨土)를 만드는 일은 누구에게 미룰 일이 아닌 불교의 책임이다.

▲김익기(사회학)는 지난 10월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Seminar on Community-based Urban Environmental Management에서 '도시 빈민지역에서의 환경의식과 환경관리'란 논문발표.

▲김정재(영어영문학)는 지난 9월 9일에 있는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

▲김정재(영어영문학)는 지난 9월 9일에 있는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

▲김정재(영어영문학)는 지난 9월 9일에 있는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

▲김정재(영어영문학)는 지난 9월 9일에 있는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

▲김정재(영어영문학)는 지난 9월 9일에 있는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

▲김정재(영어영문학)는 지난 9월 9일에 있는 한국 '영미문학 페미니즘'학회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

불경전산화 학술회의 열려 "불전보존·자료활용 도움될것"

불경전산화 국제학술회의가 정각원(원장=한보광·선학) 주관으로 지난 3일 동국관(L303)에서 있었다.

세계불전전산화학회(회장=캠캐스터·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주최한 이번 회의는 학내인으로는 민병천 총장의 10여명, 국외인사는 캠캐스터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번의 회의로 구성된 이날 학술회의는 제1차회의에서 △하위에 댄(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교수는 유니코드 개발 △스피버그 맥킨(미국 일리노이 주립대)교수는 문헌 코딩선도, 제2차회의에서는 △존 레호먼(미국 일래스카 주립대)교수는 다중매체 표준을 발표했다.

3차회의에서는 △장(대만 중국중앙연구원)연구원은 중국이십오사 데이터베이스 △리 수파차이(방콕 마히들대학)교수와 티형 사용(방콕 마

히들대학)교수=태국판 팔리장경 △하위에 댄교수=박물관 정보과학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보광 정각원장은 "불전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불전의 보존은 물론 자료의 편리활용, 신속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우리로서는 한글대장경까지 전산화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에는 명사초청대법회에 캠캐스터 교수가 초청돼 '불교학,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정각원에서 특강을 한바 있다.

학교발전기금 기부방식 대외 확대

1백주년기념사업본부(본부장=박동기)는 종전까지 본교내에서만 행해졌던 '선약정·후장기분할 기부방식'을 대외적으로 확대한다.

제32회 학술상 및 제9회 동대문학상 공모

생각하는 청춘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제32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앞찬수확을 거둬온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 1일자 본지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260-3491-2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동국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시상
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동대신문사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증과증원 관련기사... 심층화 미흡
다각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내야

본고의 내년 입학정원이 7개학과 신설등으로 인해 4천8백명으로 증원됐다.
이중 서울캠퍼스는 야간강좌에 4개학과가 신설됨으로써 증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호 동대신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증과증원과 단과대 및 과명 개칭으로 인한 학내의 분위기를 취재기사 및 동아로 등에서 다루면서 증과증원이 단순히 학교규모는 일로 그치지 않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시적 '야간강좌폐지'를 우려하는 야간강좌 학생들의 입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증과증원 문제에 의해 야기되는 공간·교과과정 문제뿐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어 일어날 수 있는 기타 여러상황을 다각적으로 심층화 시켜낼 수 있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이재호

(경상대 회계학과 분사모니터)

기사반복, 오자처리미흡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지난 1156호 동대신문에서는 두 가지 헛점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여전히 나타나는 오자 처리 문제이다. 그것도 제목에까지 그

런 실수를 보이고 있다. 여문면에서의 '오늘을 사는 동국인'에서는 기사에는 '용화사'라고 표기된 것이 제목에는 '용화사'로 바뀌어 표기되어 있다. 논설면의 '국보법 철폐론'기사에서는 '철폐위한 방안 강구'를 '철폐위한 방안강구'라고 표기하였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대신문에 이같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가?

다른 하나는 같은 내용 기사의 반복이다. '조용구 동문 등단기'는 크게 기뻐할 일인 하나, 1면과 2면, 8면에 걸쳐 실린 것은 8면으로 된 동대신문에서는 면면 주시식의 나태함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동국만남'과 '동아로', '봄움의'의 주체일치로 지루함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학내 중요한 사안인 하나, 이 셋의 동일주제는 신문사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기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그보다 더 큰 실수는 2주간의 휴간에도 불구하고 휴간안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혜원

(인문대 철학과 분사모니터)

동/문/칼/럼

열악한 교육환경 자구책 고민, 경쟁력 길러야



고 천 석 (주)태평양관악지점장·정의83쪽

'대학순위가 바뀌고 있다.' '서울지역의 세칭 일류대중 상당수가 지방 명문대에 의해 상위 그룹에서 밀려나는 예상밖의 판세'

내가 최근에 접한, 모일간의 전국 4년제 1백31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평가 발표 기사 내용의 일부본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지만,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대학평가작업은 대학의 경쟁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대학평가작업이 엄정한 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올바른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되었는지는 차치하고, 교육여건, 연구실적, 재정 등을 대표하는 10대 지표를 선정해 실시한 대학평가를 보고 교수, 재학생, 대학관계자 그리고 관심있는 사회인들중에는 충격을 금치 못하거나 가슴에 와닿는 반성의 기회를 가진 사람이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계기로 나는 동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국의 위상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대학평가 10대지표별 상위 10개 대학에서 동국대가 상위권에 든 횟수는 겨우 하나뿐. 동국대가 이 정도밖에, 동국대... 좌절함에 낮은기였다.

1906년 명진학교 개교 이래 88년, 1953년 동국대학교로 승격 개편된 이래 41년이라는 어느 명문대 못지않은 긴 전통을 지닌 동국대의 현모습이 이제 '말 안듣는다'는 동국인이여 부끄러움을 알라!

국제사회는 급변하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제경쟁력, 우주과이라운드를 바탕으로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대응, 다가올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는 구조적 변화 여건이 대

대하여 하여금 교육과 연구에서 경쟁체제로 변화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동국대학교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 미래사회에 적응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감히 혁신하고 국제화를 추구해야 한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정부행정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고, 졸업생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사회에서 불필요한 불평등을 양산하는 불평등의 대학이 결코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의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연구인력, 전문인력, 기술인력 등 분야별 인재에 적절한 유급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대학은 진정한 배움의 터가 되어야 한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하랴) 동국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시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열람실 컴퓨터실종 관리체계 철저해야

방학이 끝났음에도 열람실 컴퓨터 세대가 사라졌다. 그리고 개학한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이를 모르는 학우들은 컴퓨터가 없으므로 인쇄 부류카드를 찾아서 책을 대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컴퓨터를 당분간이라도 사용할 수 없으면 학우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문을 써서 붙이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위촉되어 직원에게 말 한마디 거는 것을 미안해한다.

94년 컴퓨터가 처음 설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을 일으켰다. 이를 소홀히 관리한 직원의 무책임을 그냥 간과하고 말아야 하는가. 학우들의 편의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면 관리 또한 철저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학우는 과연 몇이나 될까?

학원내 우리를 위한 사업이 소홀히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대중의 무관심은 또한 어찌해야 할까?

당혹스러운 마음보다 대학내 만연해지고 있는 무관심과 학교당국의 소홀한 관리체계가 이러한 무관심을 타고 더욱 더 커질까봐 안타까울 뿐이다.

이희정

(인문대 국문과)

유형업소 24시간 영업 성건동은 좋을까?

개학과 함께 학우들에게 다가선 '경주전역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유형업소 24시간 영업허용은 학우들의 생활문화공간인 성건동을 병들게 하고 있다. 성건동 일대는 동대 학생들이 밀

집한 주거지라는 점, 또한 그 주변에 경주여고마저 자리잡고 있어 성건동은 '관광특구'가 아닌 '변화 및 지역문화의 특구'로 지정되어야 할 공간이 아니겠는가?

부신의 경우 해운대 일부지역만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24시간 영업허용이 실시되고 있다. 즉 부산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다.

자유 발언대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의 위상 학문공동체건설 위한 생협 공간

공관위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과연 학생 대중들이 그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역할의 정립을 위해서 열민들 고민하고 있을까? 혹은 학생대중들이 작년 총학생선거에서 표출된 학복위의 공개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결하여 공관위를 복지문제 해결의 사상아로써, 학교당국과의 복지문제에 대한 투쟁의 패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급년도 학복위위원장 직접선거 운동과정에서 표출되었듯이 학복위와 제주체와의 이합(?)의 산물로서 공(관)위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질문은 그동안 수차례의 공관위원회의의 안건으로 다루어졌던 많은 문제-학복위의 예산심, 노동조합의 복지지원, 중구예술제 및 대학원 학술제의 예산 지원 문제 논의-에서 나타났듯이 공관위가 단지 복지문제 해결의 자금원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듯한 우려와 함께 정말로 학내 구성원들은 올바른 생활협동조합 건설을 위한 발전적인 시각으로 공관위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아니다! 우려와 의구심은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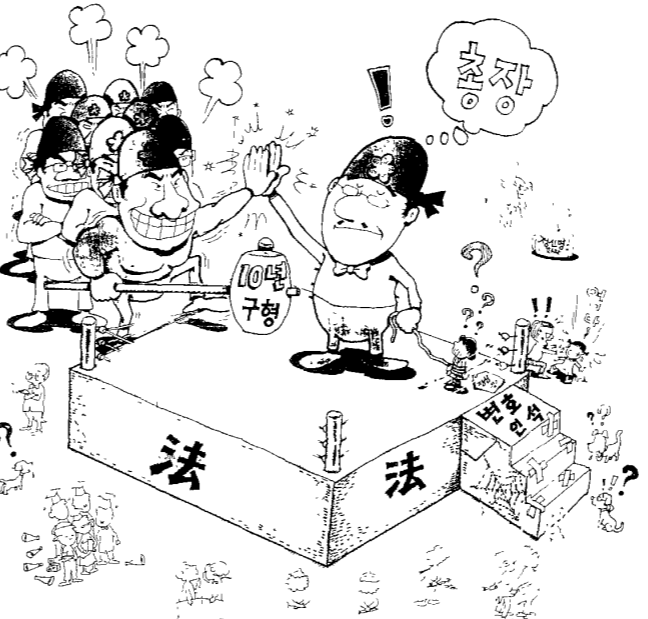
공관위는 생활건설을 위한 한시적인 과도기기구로서가 아닌 우리 대학의 현실속에서 장기적으로 진정한 학문공동체 건설을 위한 토대로서의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장소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생활에 대한 제주체들의 대중적 공유가 무엇보다도 이제는 절실하다. 생협은 학생들뿐만, 교수들뿐만, 어느 한 구성원들의 특점적, 배타적 운동으로서만 이루어 낼 수 없다.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정적으로 생활협동을 통하여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의 진정한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여 이상적 학문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대중적 의지로써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학 생활의 바람직한 위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따라 생활의 틀은 대학 고유의 역사성과 전통에 바탕을 둘 수 밖에 없음을 염연한 현실이다. 이미 생활을 건설한 조대, 외대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들의 생활 출발이 대학생활의 선구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미시적관점에서의 학생복지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출발했음에 따라 생활협회의 초기 시점에서의 제주체들의 학문공동체 건설에 대한 공유와 자각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에서의 바람직한 생활의 건설은 아직도 많은 객관적 검증들을 통한 이론의 개발이 필요한 때이다.

이건배

(공관위 사무국장)

소대 만평 무고 CUPE타이틀전

서대원 (민화가·국문 72쪽)



홍코너 선수: 김철창

선수: 김사사 (서정 교원 박연) 가다: 저작권 침해 출판사 사경들

장소: 서울 행사지점 6만도원 사경명: 94고문63번

청코너 선수: 김경관

남편: 서대원 (국문 72쪽) 출판사 사경들

아이: 장영자 (3쪽) (이영자 2쪽 4쪽)

일시: 1994년 9월말 ~ 10월말 사이

작가 서대원동문은 지난 7년동안 저작권투쟁을 부인 김경관씨와 벌이던중 김경관씨가 검찰총장 무고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동/악/광/장

목 먹 골

- 누구와 현주가 만난 지 1년째 날! 축하해주세요!
- 공대인종의 K·W
- 진석야 Happy Birthday to you!
- 진현의 서도희 94일동
- 문수생일을 마나나!!! 축하해요. 우리를 만났다고 그리 힘들게 세상을 살아왔다. 이제 그만 폭 쉬어!
- 94지도 우리들
- 교육학과 동미야! 10월3일 너의 남자친구와의 2주년을 축하한다. 김자탕 사들께
- 맛있는 생배가
- 10월6일 귀여운 혜원의 생일을 증말로 축하합니다.
- 사랑하는 선전부 일꾼들이
- 알립니다
- 학생연대회의(준)
- 정수경 (20 통조) 생일 많이많이 축하합니다
- 오빠
- 권효상의 첫방송을 축하하며
- 전기공학과 1
- 주석야 생일 축하한다.
- 빛물이 빛동이가
- 자연과학연구소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며 20주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쪽
- 10월8일 가정교육과 정수경의 생일을 축하한다. 많이 먹고 씹씹 자리라!
- 너의 남자 친구가

- 예교 축구·농구 결승전출
- 우하하
- 수고하셨습니다
- 지교1학년 개떼
- 교육학과 1학년 일일호프 수고하세요!
- 동띠
- 국교 축구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동띠
- 동서인, 모두들 전시에 때문에 수고 많았구요. 앞으로도 계속 서실을 사랑해주세요.
- 93 예베타가
- 진주·마산 체육대회 (10월1일)에 참가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
- Crystal Moon
- 윤리와 여러분 '힘있게 준비한 다고 수고 많이 했어요. 특히 팔뚝 땀고 허벅지 정말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그치?
- 윤리와 편지부 한 학우가
- 수고축전 94도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계세요. 열심히 끝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미출과 익명의 인

- 승민and우규형 콜로퀴엄 수고 하셨습니다.
- 사랑하는 지교후배 일동
- 그리고...
- 글·주·회
- 농경야! 우리모두 민우, 인기, 경회를 도와 과명을 지키자꾸나.
- 김·주·회
- 열심히 한 영문과 글베 보기 좋았다!!
- 상철·기환
- 음울이 잘 살아다. 어제 축구할 때 너 정말 멋있었지. 평소때도 좀 그래봐라.
- 93동기
- 한기가 10/11군대간다나? 씩씩한 군인이어찌가 되길 바래요.
- 93 지교 예베타들
- 흥임야 군대 잘 갔다와
- 수고과 해원, 명자, 형제
- 와! 국교과 축전이 시작된다며? 우리 손에 손잡고 국교과 축전 함께 해보자! 일시: 4월~8일
- 귀염둥이 중
- 4학년 마지막 밤샘 작업을 마치며 4인방의 우정을 다스리란 확 인했다.
- 미출과 익명의 인

- 한번 반짝뜨길 결코 원하는 건 아니다. 서서히, 차츰, 그러나... 최은석 (영명4)군의 음반 취입을 축하합니다.
- 바리밀
- 달봉야! 돌핀스회원이 된것을 축하합니다.
- J·D
- 알립니다
- 동문회화장
- Youth-JC인이며,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 회장
- M·I·S 10월 21일 포장에서 일일차집을 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 M·I·S 청소부장
- 사복과 내 동아리 그루터기가 10월 5일에 첫공연을 가집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 더러버&다소미
- 백삼 대동제를 위해 딸똥리는 실천인들의 권투를 받습니다.
- 분홍
- 신라고 긴급동문회 합니다. 6일 오후5시 A308에 전원 참석 바랍니다.
- 회장
- 동국불림 불림장에서 자주봅시다.
- 국경 94,水仙花

- 오토바이(60cc) 절충가로 삼니다. 맥트, 리드 포함
- 012-546-9095
- 한성기도 드디어 여자친구 생겼네요.
- Beast.
- 수고하셨습니다
- 42회 일동
- 아홉번째 동아리 대동풍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동아리 집행부 힘내십시오.
- 편지부장
- O·P·G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HAM의 학우 여러분의 전원합격을 바랍니다.
- 97기 이쁜이
- 성민야! M·T·동안 수고했다. 즐거웠고 다음에 한번더...
- SNAKE
- 그리고...
- 가교인
- 가교과 승리의 고지는 저기에. 백삼체전은 우리것이예요. 화이팅!
- 가교인
- 영수형! 건강을 위해 술좀 그만드세요.
- 일규
- Sister Jin Young 정말로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M·B
- 철학과 진용야 10일이후에 부산으로 오나라.
- 세연

은 방 골

- 축하합니다
- 94학번 동생들
- 생활학과 3학년 김대원의 2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재승, 진우, 윤
- Metal age의 역사적인 입방식이 있습니다. 동국인 모두 축하해주세요.
- Metal Age's Kicks
- 기영구나 생일 축하해요.
- 청하와 쫄개들
- 사라벌! 다우회 동아리팀 이전 공사 무사히 마친것을 축하드립니다.
- J·D

구조적 부정부패와 불교적 대응

부정부패 - 사회 개혁 저해 바이러스

인간 사회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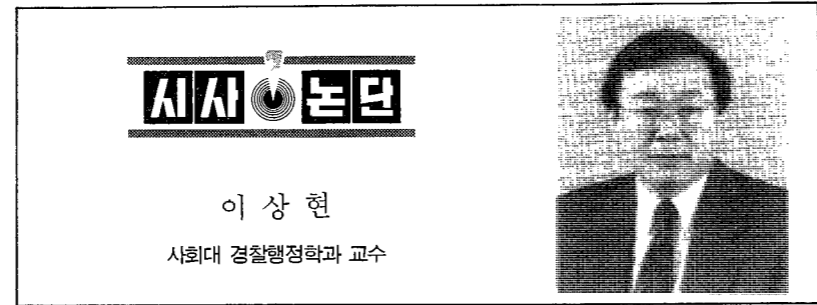
지금 인천시 북구 세무공무원들의 세금 횡령사건을 보고 온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로 나라안이 들뜬 분위기다.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만국병인데 그 치료는 대통령 한 사람만으로는 안된다"

이말은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사회적 부정부패는 사회적 역사적 개념으로 그 시대에 따라 내용과 규모가 다르고 그릇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 그 내용과 정도도 다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부정부패의 형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횡금만능주의 등의 부정심리(不正心理)에 기인하는 정치인의 권력형부정부패, 고급관료·하부공직자의 뇌물



이상현 사회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수수와 직권남용, 기업인의 탈세와 부당이득, 일반인의 편법주의와 한탕주의 등이라 하겠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원인을 유발하는 것은 권위주의나 통치체도의 결과라고 한다. 통치체도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이 비관없이 인정되는 사태가 있다면 이는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국가가 건전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국민이 배우는 가치관이나 규범은 사실상 공식적 표방에 그칠 뿐이고 실제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이기심, 사리사욕, 지배욕, 물질만능,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 등 이러한 공식적인 가치관과 규범을 비웃고 거역하는 무규제론, 혼란상태, 즉 아노미(Anomie)한 사회풍토가 조성되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행위는 더욱 확산된다.

부정부패행위는 개혁의 실효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이며

나아가 사회 각 분야의 윤리규범의 혼란, 국가 기강의 해이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상호신뢰와 국민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잠식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며 나아가 국민의 응집력과 국가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부정부패행위는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산물인 것이다. 그것은 부적합한 사회방식과 사회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재산을 획득하려는 욕구충족때문에 부정부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상전도, 낙전도, 정전도, 아전도의 네가지의 전도생각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Alexis de Tocqueville은 책임논리에 입각한 시민으로 구성된 근대 시민사회의 권리침해를 대한 자제력을 역설하고 있다. 인류사회의 불교는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문화 현상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경우 불교관은 일정한 초자연적, 초경험적인 능력자로서의 부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귀의하여 그의 은혜를 받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의하여 인생의 운명을 크게 좌절될 것을 인식하면서 그를 높이 숭배하는 활동 또는 포교를 해야 한다.

장 발원'등의 파문이었다. 어느새 잠적해버린 사건들이다. 사실여부는 호지부지해지고 논리성의 부재적함에 대한 지적도 잠시 뿐 사회적 불구리를 일으켰음에도... 이것으로 내려진 결론은 '언론이 정권을 지배한다'이다.



자본주의 사회 언론의 역할과 본질

언론·정권 밀월관계 해결 승부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본질'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가 지난 29일 사회대학생회(회장=김정대, 행정4) 학술제인 '능금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겨레 신문사 기자인 이공순기자의 현지 기사가 본 공인언론의 실태를 바탕으로 한 '한국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현실'이라는 기초발제로 시작됐다.

본사 편집장 및 교내 각계언론사장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약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언론의 첫째 역할은 전달이다. 또한 전달은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사실과 논리 양쪽에서 모두 어긋나고 있다"

이것이 이공순기자의 첫번째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힘은 강하다고 그는 자신있게 말하고 나섰다.

어쩌면 앞뒤가 맞지않은 한 기자의 뉘그러치런 들리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고 나서지는 못하는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힘있는 예가 얼마전까지 각종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인 언론공세를 퍼부은 '북한을 뿌리에 둔 주사파, 박종철

장 발원'등의 파문이었다.

언론과 정권의 밀월관계가 계속될까라는 의문을 던짐으로써 토론회는 막을 내렸다.

(양수정 기자)

사설

합리적 총장선출을 위하여

2학기 개강과 더불어 뜨겁게 달아 올랐던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논란이 상쾌한 가을바람과 함께 정리되는 듯 하다.

지난주 교수회는 '동국대학교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에 입각한 선거일정을 밝히며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 경주 합동대의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난히도 짜증나고 무더웠던 지난 여름 학원 자치의 초석이자 학원 민주화의 산물인 총장 직선제에 대한 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 자리를 통해 제기되면서 사립대학 총·학장 협의회 등에서 계속적으로 총장 직선제의 문제점을 들며 폐지여론을 형성해 온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회의 이번 결정은 아주 원칙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자칫 총장 선출방식의 문제로 혼란스러워 질수있었던 이번 사태를 일단락 지어버리는 계기가 된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바수만 보내며 앉아 있을 수 만은 없다.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혹시 파벌 조성이나 비민주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 이미 직원노조에서는 직원참여 부분이 포함된 총장선출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이며, 학생회 역시 조만간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총합평가, 교육시장개방등 앞으로 3~4년은 누가 뭐라해도 우리 동국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기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대학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총장을, 선출과정에서부터 구성원들간의 갈등속으로 몰아 넣는다면 엄청난 힘의 낭비가 아닐까 우려된다.

이제 물꼬는 트었다. 우리 모두는 총장직선제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만 연연하지 말고 합리적인 총장후보 선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추계명찰순례안내
사색의 계절입니다. 마음편근하게 깔려있는 가을의 들판과 고즈넉이 앉아있을 산으로 스스로를 찾아 떠나 봄시다.

가을입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한번 느껴보십시오. 여기... 인생과 사랑을 조망하는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94 군장학생 (후반기) 모집
1. 모집인원:1학년(00명), 2학년(00명), 3학년(00명)
2. 지원자격:4년제 대학-1학년(72.1.1~78.1.1 출생자)

'95 학사사관후보생모집
1. 모집인원:00명
2. 지원자격:4년제 대학 졸업자(95.2월 졸업 예정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1967.10.1~75.9.30 출생자)

취업설명회안내
'95년 2월 졸업예정자 취업 설명회 안내 및 재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회사설명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에 개최하니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취업준비에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삶을 조망하는 영화세계>
일시 제목
10.5 7월 4일생
10.12 아웃 오브 아프리카
10.19 파워 오브 윈

5. '94 군장학생 (후반기) 모집
1. 모집인원:1학년(00명), 2학년(00명), 3학년(00명)
2. 지원자격:4년제 대학-1학년(72.1.1~78.1.1 출생자)

6. '95 학사사관후보생모집
1. 모집인원:00명
2. 지원자격:4년제 대학 졸업자(95.2월 졸업 예정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1967.10.1~75.9.30 출생자)

제2기 한총련 중앙위 취재기

의견개진운동등 한총련 거둬 나기 심화

과발전 특별위원회·간부 혁신 사업 제안... 학생회 강화

각 학교에서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의장=김현준·부산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의 혁신을 위한 의견 개진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혁신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각 학교 총학생회장들의 회의인 제2기 한총련 제2차 정기 중앙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경희대에서 열렸다.

을 상반기 만큼 한총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 적이 없고, 치밀한 고민이 요구된다는 드물기에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사업을 인준하는 이번 중앙위

원회에서는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더구나 한총련 의장 김현준과 각 총련 의장들에게 전원 수배령이 떨어졌고 정부가 검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앙위원회는 더욱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었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한총련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중앙위원회는 철저히 비밀스럽게 진행됐다. 한양대에서 하위 행사를 진행하면서 진짜 행사는 학술토론회로 위장되고, 그 시간에 경찰들 또한 사복차림으로 각 학교 앞에서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회의 인건 및 개최

이번 상향에서 회의는 전체 중앙위원 2백20명 중 1백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됐다. 성원 점검 및 정족수 확인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보고안건으로 삼반기 활동 보고 스페셜1차 범청학련 총회 결과보고 등이 보고 됐으며 본 안건으로 △한총련 선거법 개정 △삼반기 평가 및 하반기 사업결의(의견개진운동 중간총회 보고 포함) △각급학생회 선거에 즈음한 한총련 특별·공공투쟁 제안등 크게 세 가지가 논의됐다.

선거법 개정

첫번째 안건인 선거법 개정은 한총련 의장 선출을 학생들의 관심속에서 보다 대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고민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삼반기 1차 정기중앙위원회 때 선거법 문제로 지리한 공방전을 겪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모습과는 달리 1백14명중 찬성 1백8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이 반대없이 통과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추천과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삼반기 정기 중앙위원회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출마자는 중앙위원 자격의 대의원을 본부장으로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다름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를 제외한 다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이다.

삼반기 평가

선거법 개정부터 보여지는 현재 한총련의 고민과 혁신의지는 가장 중요한 안건인 삼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평가의 주된 내용은 한총련이 남한사회에서 자리잡고 있는 역할과 내세우고 있는 방향성 즉 조국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삼반기 한총련 사업은 정당하였으나 국민들과 학생들의 정서를 파악하는데 치밀하지 못하여 세련된 방식으로 지지를 얻어내는 데 실패한 점이 지적됐으며 또한 수인개발 지지투쟁이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대단위 집회위주로 진행되고 학생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투쟁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기층 학생회가 강화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술적으로 국회비준 지지여야 미국의 본질을 알리내기에 정부가 검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는 국회의원 실력등으로 대립구도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사업결의

평가에 대한 토론에서 중앙위원들은 과 학생회가 강화되어야 하고, 보다 많은 대중들의 요구와 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학생 한 명 한명부터 과학생회 그리고 한총련에 이르기까지 바뀐 없이 의견들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사업들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고민에서 이날 모인 중앙위원들은 △학생회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과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간부 혁신사업으로 '하루 000페이지 책임 운동' △국가보안법 철폐 △미국 회비준지자 △민주노동 건설투쟁 등을 제2기 한총련 하반기 사업으로 확정했다.

의견개진운동 중간총회 및 범청학련 총회

삼반기 평가와 하반기 사업결의 이후 '한총련 의견개진 운동' 중간 총회 발표가 있었다. 10월 초 전국적으로 총회와 공개될 예정인 이 운동의 의의에 대해 한총련 의장 김현준은 "한총련 의견개진 운동은 수세적, 전술적인 운동이 아니고 참담하게 한총련이 개척하기 위해 학우들에게 그 개척의 지점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15일 무상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 총회를 올해안에 성사시킨다는 목적으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총회가 서면총회 형식으로 진행돼 범청학련 사업 평가와 전망, 연방제 통일방안 등의 내용을 통과시켰다.

중앙위 특별 결의문의 채택과 폐회

이날 모인 1백14명의 중앙위원들은 현 정세와 관련해 △공간 단합 분쇄를 위한 투쟁결의문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총련 중앙위원회 투쟁결의문 △U-R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투쟁결의문 △민족대학 건설과 교육개혁을 위한 백만학도 투쟁결의문 등 4종류의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중앙위원회를 성사시키고 "절대 잡히지 말자"고 인식하며 자리를 일어나는 김현준 의장과 중앙위원들의 모습에서 "한총련은 정권이 버려 버리고 다리를 자르더라도 끈 회복되는 결코 죽지 않는 조직"이라는 김현준 의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는 이들에게 한총련을 강화시키고 발전시킬 임무를 확인시켜 주면서 막을 내렸다. (이석중 기자)

한총련의장 김현준군을 만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구체화, 한총련 발전 디딤돌



지 못했다는 것이 중심평가 내용입니다. 올해 한총련 총노선에서 중심적으로 내세웠던 반미·반일 노선은 옳았다는 것이 정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입증되었습니다. 삼반기 한총련의 정치투쟁은 방식상의 세련됨에서 부족했지만 상당부분 성공적이라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총련 혁신운동이 제기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조직강화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된 배경이지요. 또한 국내외적 정세변화에 따른 정치의식의 고함과 계층의 다양화에 따라 학우들이 학생회 사업의 다양성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에 대한 선진·조직화·대화방식의 질적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혁신운동, 의견개진운동이 지금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연한 투쟁방식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 것만은 아닙니다. -의견개진운동이 일시적인 요시행사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진 학생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조직이 건강성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요. 한총련 혁신은 과학생태부터 한총련 중앙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고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는 것. 1만 학생회 일꾼이 1백만 학우를 주인으로 내세우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구체화하는 전과정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혁신, 변화는 한총련의 강화를, 발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총련 하반기 사업의 중심기조는 무엇입니까? =과학생회 강화, 간부혁신, 정치투쟁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UR비준지지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극히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면서 민민운진영을 고사시킬려고 했던 주사와 논쟁등 일련의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미관계가 호전되면서 조성된 통일정세를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본토대 마련이 기도 하고요. (정라·이석중 기자)

시사 초점 '아이티 내전'

미국 군사 개입, 식민지화 기반 마련

아이티 내전은 외세에 의존해온 성장기반을 해체하지 않은 형태상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담장밖의 남의집 이야기 일수가 없다. 아이티 군부는 1967년 '프랑스식 위발리에'의 집권 이후 미국의 지원 아래 30년동안 철권을 휘두르며 강력하게 성장해 왔으나 반체제 세력의 파상공적으로 '위발리에'는 몰려나고 체제는 계속 존속했다. 1987년 실시됐던 국민투표는 군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유희사태와 함께 무산됐으며 4년 뒤 아리스티드 대통령 선출 이후 발생한 쿠데타는 군부정치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 쿠데타는 급진적인 제3세계 민족해방노선을 지향해왔던 아리스티드를 제지하고자 했으나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아리스티드가 복귀함으로써 재집권 하게 되자 미국은 아이티에 대해 비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미국에 제휴하고 있는 '아이티인민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사안 (사희부)

동약로 복지 '위험 정보'

학생: "아줌마, 밥 많이 주세요!"
아줌마: (눈치 한번 주고, 한주먹 때서 반은 남기고 흐트머리 만능만 얻어준다.)
학생: 이 반찬은 안 주셔도 돼요, 저 반찬 좀 주세요.
아줌마: "아이구, 이 밥에 이 반찬도 언제 다 먹을랑요!"
학내식당 배식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랑이다. 2학기 들어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경보·법4)는 학생식당의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 학생회관은 배식구를 2개로 늘려 정식위주로, 도서관은 분식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게 했다. 그러나 식당측 서비스 개선은 여전히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학생들은 '연제까지 내내 내고 눈치만 먹어야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학생: "x x책 있어요?"
점원: "지금 없네요"
일주일 후
학생: "x x책 왔어요?"
점원: "아직 안 왔는데요"
이 또한 구내서점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윤진화 기자)

얼마전 학복위와 총학생회(부회장=박형규·철4)측은 자료를 통해 구내서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점측은 아직도 목북부담인 채 어떠한 응답의 형태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교내 학생 복지시설은 학생회관 휴게실 매점을 제외하고 모두 임대로 운영되고 있어 직영형태의 관리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모든 복지시설에 대한 견제는 학복위와 관재과가 공동으로 하게되고 시정조치는 학생처장의 결고를 통해 이뤄지며, 3회 경고시 재계약할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내 복지시설의 주인과 직원들의 불친절(특히 학생회관 식당과 휴게실 매점 교내서점 등)이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학복위측의 설문조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 학교측의 조치 또한 적절하게 취해져야 할 것이다. 복지시설측 또한 율동사미식 시장은 이제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윤진화 기자)

'진한숨 패인 주름 위로 흘리는 아버지의 웃음은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서..."

모처럼만에 찾은 시골들녘은 변함없이 푸근함을 안겨줍니다. 삼삼개가 꼬리치고 담너머로 보이는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가 정겹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릴적 추억만으로도 내 마음의 안식처였던 고향에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한가위 휘황찬 밝은 달은 여전히 한데 진한숨 패인 주름위로 흘리는 아버지의 웃음은 눈물이었습니다. 재료값에도 못미치는 농사일을 그래도 천직처럼 알고 육십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가 너털웃음을 잃어버린 것은 UR여파가 몰아닥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래도 믿어야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의 말을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셨던 때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민방직까지 내다보시며 배움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은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아버님의 잃어버린 희망을 찾기위해 두주먹을 불끈쥐고 밀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인민의 선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학생생활연구소 현황과 과제

교육의 질 좌우 큰 몫... 학교당국의 정책적 배려 필요

고민해결장... 학우찾아가는 연구소로 탈바꿈

학생생활연구소 개소 25주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지도는 계속 낮아져 가고 있다. 25주년을 맞아 학생생활연구소 실태와 발전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

우리학교 학생생활 연구소가 개소된지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한다. 적지 않은 연륜에 비해 그동안 학생생활 연구소는 우리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기관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그동안 학생생활 연구소가 여러가지 점에서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며,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교내외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한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학생생활 연구소라고 하면 흔히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한 기관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그동안 학생생활연구소의 나름대로의 활동과 사업에 의해서 일부 수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학생생활 연구소라는 명칭부터가 일부 교내 구성원들에게는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전국 대학학생생활 연구소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번 거론된 바 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생생활연구소의 위상과 기능이 절박한 명칭에 대한 의견의 통일을 보기 어려웠다.

학생생활 연구소의 기능은 사실상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 적절한 명칭을 가지고 고심하는 것도 학생생활 연구소의 기능이 타연구소와는 달리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고보아 학생생활 연구소는 상담기관적 성격과 연구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소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연구하고 봉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시로 대학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학상담이나 취업상담, 학업상담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정보제공은 물론이거니와 심리상담등을 통해서 본 연구소를 방문하는 내담자(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약 3~4년전부터 연구소를 방문하는 본교의 내담자들의 경우 사회, 정치적 문제 보다는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내담자 개인의 세속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들만 아니라, 개개인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개인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내담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수는 없지만,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불안과 이상현상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여려차례 대하다 보면, 대학이 결코 전공학문을 통해 학문의 전수만을 하는 곳으로 안주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내담자들이 평소 개인적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전혀 없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고민을 상담하고 이를 해결해줄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 상담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담기관

이용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감안해 보더라도 학교의 공식적인 상담기관인 학생생활 연구소를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일부 내담자들의 심리적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사회내에서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현실이 다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학생생활 연구소가 대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내담자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느냐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학생생활 연구소가 해야할 일이며 내담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학생생활 연구소를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상담자 입장에 있는 필자와 같은 사람은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내담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남게 마련이다.

물론 내담자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본 연구소에서 해결해줄 수는 없고, 심리적인 심한 좌절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들은 소수일지 모르다. 그러나 내담자가 개인적으로 처한 심리적 문제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내 상담기관의 기본설비와 준비는 되어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적 혜택은 산술적 의미에서 수혜자들이 학생들에게 균분되는 것으로 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심한 좌절을 느껴 여러가지 형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혜택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두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이다.

각종 상담과 성장프로그램 및 상담기법의 개발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학생생활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운영자들이 책임질 일이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활용,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해당당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종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상담과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자재의 설치, 연구소의 지리적 위치 및 적절한 환경여건의 구비와 같은 하드웨어적 요인이 적절하게 지원되었을 때 성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대학에 있어 학생생활 연구소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이해가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학들은 당장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적 역량과 수준이 일정한 계층에 오른 대학들의 학생생활 연구소는 대부분 대학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사업과 활동을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대학에 있어 학생생활 연구소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데 있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대학당국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이제 대학에 있어 학생생활 연구소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데 있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대학당국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이제 대학에 있어 학생생활 연구소에 대한 정책에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앞으로 학생생활 연구소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연구소에서 학생들의 곁을 찾아가

는 연구소가 되고자 한다.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약3백여명 가량의 본교생들이 본 연구소를 방문한 바 있지만, 전체 학생수에 비한다면 이용자는 수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본 연구소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대학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심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교내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생활 연구소를 알리는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보다 많은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인력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 대사관 혹은 문화원등과 협력하여 얻지 못하는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등이 그러한 예로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번 2학기 중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비단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 본 연구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일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던 취업관련 인성 및 적성검사 뿐만 아니라,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 및 적성검정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필자는 무엇보다도 본 연구소 구성원의 자기발전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우선 이 글을 쓰는 계기로 필자 자신부터 연구소의 발전을 저해하는 나태한점은 없었는지, 맡은 일과 관련된 여러가지 구실로 이를 실천하는데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진호

(학생생활 연구소 연구원)

이 모순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스티븐 호킹이다. 사건의 지평면 주위의 진공에서는 블랙홀의 강한 중력장으로 인해 수많은 입자-반입자가 쌍생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중 반입자는 (-)질량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블랙홀의 질량을 감소시킨다. 이때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간 입자는 마치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3. 블랙홀은 소멸한다

결국 위와 같은 원리로 블랙홀도 외부로 물질 혹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물질을 방출하는 비율이 질량을 흡수하는 비율보다 크다면 그 블랙홀은 온도가 높게 관측될 것이다. 우주 초기에 생성된 미니 블랙홀은 그 크기가 양성자 크기 정도라서 흡수보다는 방출이 크고 방출을 하면 흡수할수록 온도가 올라가 그 방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결국 미니 블랙홀의 최후는 대폭발로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정화

(이과대 물리학과 자연과학 연구회)

◇ 생각해 봅시다

'지존파'의미



'지존파' 그들의 실체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각종 언론에서 모두 파헤쳐 왔다.

'이렇다' 할 결론을 못내린채 천민적 한국자본주의적 모순으로 빚어져 부의 축적과 분배의 과정에서 쌓여온 분노의 병적 발산이라는 좌경적 입장, 그야말로 인간의 탐을 쓰고 그럴 수는 없다는 우경적 입장이 맞닥뜨려져 있다.

게다가 지존이 분노 대상으로 삼은 '가진자중의 아타족과 지존파를 묶어 인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에 쩌들린 X세대로 지칭하여 반X세대적 양미론을 퍼뜨리고 한다. 이것은 다분히 사회학적 분석이다. 여기에 뒤질세라 각종 정신의학 박사들의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신경계통 혹은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공상학적 유전공학적 입장도 있고 담력을 키우기 위해 인육을 먹었다는 지존의 일련의 행적은 그들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했다.

이러한 모든 분석들이 어떻게 나건간에 '지존파 사건'은 세상에 '충격'이란 단어를 연상시키게 했고 그들은 결과론적인 좌절을 특목 및 초고 사립들의 기억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을 것이다.

여느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독자투고란에서 한 독자가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도덕의 위기'나 '이웃을 정화' 등의 표현으로 이 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지극히 관조적 입장의 보도경향에 신랄한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지존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각도이며 그로인해 생겨난 분석 또한 피로를 들고 이어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건 대안이다.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에 대한 변명이나 질타가 아닌...

관조적 입장에서 벗어날때가 된 것이다.

'돈이면 다되고 할라적 향락이 판치며 인연과 인명이 경시되는 우리사회가 근본적 자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이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란 어느 포럼의 결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다.

(양수정 기자)

과학에세이

블랙홀 이야기

흡수력 황제 블랙홀 최후, 대폭발

1. 블랙홀의 종류와 그 생성 원리

(1) 블랙홀의 종류
블랙홀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블랙홀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 대폭발 시기에 만들어 질수 있다고 생각되는 미니 블랙홀이다.

(2) 미니 블랙홀 연구
미니 블랙홀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이론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스티븐 호킹에 의해 그 존재가 증명된 것이다.

2. 블랙홀의 복사 원리와 그 결과의 예측

(1) 사건의 지평면

우리가 블랙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크기와 질량뿐이다. 블랙홀의 크기는 그 중심에서부터 사건의 지평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또한 크기는 질량과 비례하기에 질량을 유추 할 수 있다.

여기서 사건의 지평면이란 탈출 속도가 광속인 면을 말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구의 탈출 속도가 표면에서는 11km/sec이다. 하지만 지구의 질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반지름을 반으로 줄여 보자(두번째원). 그러면 표면에서의 탈출속도는 15km/sec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 지구의 크기를 용알 크기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질량의 변화는 없다)우리 지구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블랙홀에서의 사건의 지평면은 용알의 표면이

라고 볼 수 있다.

(2)블랙홀과 열역학 제2법칙 사이의 모순
여기서 우리는 열역학 제2법칙을 상기해 보자. 이 법칙은 '고립된 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그대로 이다' 또는 '고립된 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우주를 하나의 고립계로 보면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0이 아닌 계는 온도가 0°K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온도가 절대 영도가 아닌 물질인 엔트로피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스티븐-블호만의 법칙에 의하면 온도가 절대 영도가 아닌 모든 물질은 자신의 온도에 알맞는 복사파를 방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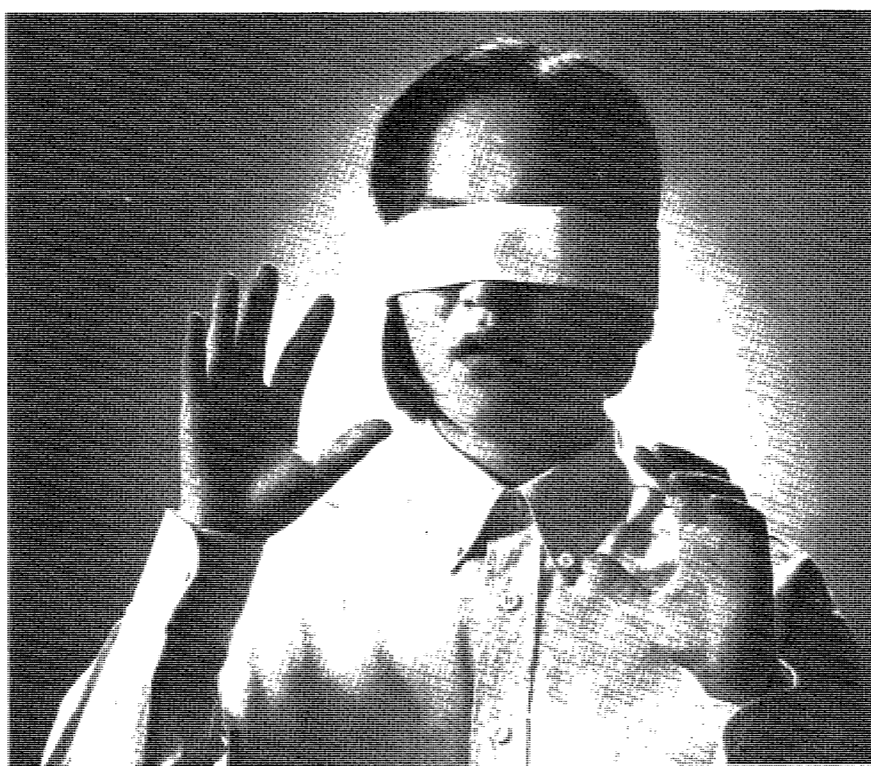
그럼 여기서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므로 엔트로피가 0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우주에서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엔트로피가 블랙홀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열역학 제2법칙에 모순이 되므로 결국에는 위의 가정을 잘못되었으리라 결론적으로 블랙홀에는 엔트로피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블랙홀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사파도 방출된다. 이것은 사건의 지평면에서 줄어들 수 없다는 것과 모순이 된다.

(3)블랙홀의 복사원리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기업 - 삼성

마음을 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삼성여대 교육학과 3년 진소희

눈을 가리고 30분만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사회의 구성진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리번거리는 까만 안경, 더듬거리던 지팡이, 지하철 역에서 무심코 지나쳐 버린 얼굴- 그날 밤 더듬거리던 지팡이가 자꾸 진소희 양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몇년 전의 기억 한토막이 새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하교길의 버스 안에서 지진 몸을 쉬고 있을 때 눈 앞을 막아서던 묵발 소년, 자리를 양보하기 싫어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한 아들의 세계,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의 반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싶지 않은 것들을 감추고 외면한 기억이 있습니다. 길가의 절인, 생활이라는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소년, 힘들게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 혈액을 기부하는 라디오 방송,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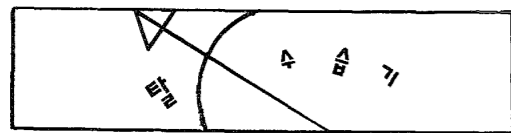
다음날 아침 진소희양은 한국복지재단을 찾아 왔습니다. "눈을 가리고 30분만 맹인 아닌 맹인이 되어 보세요." 자원봉사자로 배치받은 첫날, 진소희양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듬더듬 손에 스치는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암담하기만

마음을 열고 이들에게 한결만큼 다가서 보세요. 시간, 노동, 돈, 누구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한가지씩은 갖고 있습니다. 나에겐 허물은 도우며 불과하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늘 같은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는 대학생활의 필수 과목 - 삼성은 이웃 사랑의 작은 실천으로 자원봉사에 앞장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삼성



◇박대웅 기자

누군가가 그랬다.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나를 일깨워준 곳이다."
푸르른 3월에 따뜻한 기대감을 안은채 신문사의 문을 두드린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지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 세상 나에게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나를 일깨워준 고향같은 곳...

자문해 본다.
난생 처음 출입처를 받고 취재라는 다소 생소한 것을 하러 갔을때 출입처 앞에서 얼마나 머뭇거렸는지 모른다. 또 간신히 자신감을 가지고 문을 연 후에도 취재원에게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서 애꿎은 취재수첩만 풀어져라 쳐다본 적은 얼마나 많았는지.....
학의 집회에 나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무엇을 취재해야 하는 건지 몰랐고, 선배의 손에서 훌륭한 문명의 이기였던 카메라가 내손에서는 흉칙하게 생긴 쇠뿔이러니 지 나지 않았다.
집회장에서의 투쟁가의 활발한 기사를, 역동적인 팔의 운동, 구호등을 비롯해서 신문사에 있으면서 들

고, 보고 배웠던 여러가지 새로운 사실들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이 그 근본에서부터 송두리째 변화하기를 강요했다.
이런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점점 변해간다는 내 자신이 두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이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있음을 나는 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나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다. 아 니 오르려 한다.
수습이라는 딱지를 달고온 지난 6개월은 앞으로는 훨씬하고 가파른 산을 오르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기자로서 가져야할 인격, 소양, 자질을 나의 몸속에 축적해가는 준비기간. 부실한 준비기간을 보냈던

나에게는 어쩌면 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정기자라는 힘겹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야 한다.
때로는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때론 까 아지른 듯한 절벽을.
그 배낭이 아무리 무겁다해도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가파르다해도 나는 그곳이 한번도 침입이 산을 올라야 한다. 산 구석구석에 나를 기다리는 1만화부가 있기에, 산 구석구석에 나를 기다리는 꿈은 소리가 있기에.
피곤하고 힘들때면 몇번이고 그만두고 싶기도 했던 신문사. 그러나 지금 이곳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 바로 고향 같은 곳.....
나는 지금 고향에 왔다.
(경상대 무역학과)



◇이준주 기자

내가 지금 이곳에서 편대를 잡고 있음은 누구위해서인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책상앞에 앉아 그려왔던 대학이란 곳에 들어와 처음으로 '선택'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했던 '동대신문사'에서 수습이란 나의 보호막을 벗어버리는 순간까지 명확히 말할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 나가리라

수 습은...
어린시절 남이 쓴 글을 비판해서 읽길 즐기며 내가 쓴 글이 남에게 혹독한 눈초리로 읽힐까 봐 두려워 절대 글쟁이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했던 내가 지금, 냉혹한 수만개의 눈길을 받으며 있어야 하는 기자의 위치에 존재해왔다.
이곳에서의 6개월은 20년간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나의 가치관과 지식들을 혼돈의 세계에 밀어넣기에 존재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것인가' 결론내지 않는 질문을 나에게 반복해서 물으며 고뇌했던 순간들.
수습기자란 말의 의미도 파악하

기전에 뛰어다니야 했고, 뛰어다니는 곳에서 기사한복지 못 건지고, 달력의 빨간날에도 써지지 않는 기사를 안고 앉았던 날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허탈감으로 울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또한 나에게 정기자라는 수련의 한단계였음을 이해할 것도 같다.
순간순간동안 변화되어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하면서 지낸 시간들.
다시 돌아보면 너무나 변화되어 아니 신문사에 일부가 되어버려,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시점에 오게 됐다.
이젠 신문사에 융화되어 살아가

는 수습이란 방패를 벗어버리고 몇몇한 내이름이라 나를 향해 달려오는 때서운 비판의 칼날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 돌리며 담담히 심판받아야 했다.
"나"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며 나가야 했다.
그래, 언젠간 나도 기성인이 되어 세상을 보게될것은 일지만, 지금의 난 세상과 타협하지않으며 보내리라.
내 책상에 완성되지 못한 원고지가 쌓여갈수록, 나의 기자로서의 자질이 좌절도 하겠지만, 완벽한 글을 쓰기보단 조금은 모자라지만은 생명이있는 정직한 글을 쓰리라 다짐한다.
그리고 이 순간 난 나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변화된 날 이자리에 있게 해 준 것이 신문사임을 알기에...
(자연대 가교과)



◇박묘선 기자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철저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단지 시간은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은채 정기자라는 자리까지 데려다 놓았지만, 신문사는 그리 편치만은 않게 여기까지 오게했다.
내 손이 쥐고있는 편대에 의해 쓰여지는 기사와 3만독자에게 읽힌

수습이라는 틀속에 석고를 부어 또다른 정기자 석고상을 만들때

다는 부담감과 자부심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날 믿게 만들었다.
비운뒤에 땅은 더 굳어지듯 땅에 대한 비의 역할처럼 내 속의 수많은 갈등과 방황은 그 믿음에 비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믿음의 토대가 밝혔다.
내가 꾸릴 인생, 내가 취재하고 집필해서 만들어낼 신문에 무너질 것을 토대다운 토대기.
신문지면 속의 기사와 기사를 무작정 통째로 읽어 앞뒤 재보지 않고 정론직필 동대신문사 창문속으로 집없이 뛰어 들었다.
검없이 뛰어올라든 거만은 손쉽게 프레스기에 눌러버려 오기만을 못쳐 남작하니 남겨 놓았다.

맨땅에 돌들이 솟아나도록, 강소주의 쓴맛을 느끼도록
출입처 문앞에서 취재원과 인 터뷰, 기사술때의 머뭇거림, 영겨주춤 강소주의 쓴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6개월동안 길들여져 이제 조금 허리가 펴진걸...
내 모습의 석고상을 만들고 있다. 나도 모르게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석고상을 만들때 그 틀부터 만드는 것처럼 '수습'이라는 기자의 틀을 이제 겨우 만들어 냈다.
이제는 수습이라는 틀속에 석고를 부어 또다른 나의 정기자 석고상을 만들어 내어야 할때다.
글재, 과연 내 틀은 잘 만들어 졌

을까?
이제야 두려움과 후회를 느끼게 하고 또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수습이라는 틀이 떨어져 나가는 지금 이시간.
년 완성된 석고상이 아니라, 그저 길에 떨어진 틀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의 눈길과 몇번씩 되돌아오는 원고지에 의해 식은땀과 눈물로 얼룩졌기에 여느 틀처럼 하얗지만 숨을 것이다. 수습이라는 틀은 하지만 이제 틀을 벗어났다.
벗어내고도 홀기분함이 느껴지지 않음은 3만독자가 날 읽고 있기때문 일거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이 힘차게 들릴때까지 귀를 기울이겠다.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 해서 그들이 무력하지 않으니 그들의 웃음과 울부짖음, 날 비판하는 소리까지.
(상경대 경제학과)

국악과 불교음악의 상관관계 모색 순수전통음악, 민속음악과 불교음악으로 구성 국악의 뿌리, 민족정서—불교가 계승발전 불교문화 이해 바탕위에 국악과 교과과정 마련돼야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불교에 국악과가 설립 되었다고 하는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국악의 해를 맞는 동국인과 불교인의 자세는 국악의 뿌리가 어디에 두어져 있으며 그것이 지니는 불교와의 상관관계 및 불교적 의미는 어떻게 자리매김 하여야 할것인가를 다시 한번 명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국악의 분류는 대체로 궁중음악인 아악과 민속음악으로 대별 되어진다. 궁중음악은 중국에서 수용한 것으로 궁중행사를 중심한 귀족적 취향의 음악이었으며 그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한편 이들 궁중음악은 비록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이라 할지라도 한국적 정서로 다분히 개작 발전해 온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란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궁중음악으로서의 아악이 비록 중국에서 수입된 음악이라 할지라도 이를 우리는 국악의 범주속에 넣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민속음악이란 국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일까. 그것은 역사 이래로 우리 민족정서에 바탕을 둔 소박한 민중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을 총체적으로 축적하여 이루어 내고 그를 계속 발전 시켜 온 음악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국악의 정통성은 이를 민속음악에서 찾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음악인 아악을 무

리 국민정서에 맞도록 국악화 하여 있어서도 그것은 민속음악의 정서를 의면할수 없었으며 오늘의 새로운 국악의 창작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민속음악의 정서가 무시 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와같은 국악과 불교음악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것일까. 우선 여기서 국악의 정수인 민속음악은 우리의 전통음악이고 그 전통을 계승 하는데 불교음악은 불가본의 관계에 있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음악이란 불교전래와 더불어 의식음악으로 전래 되었으며 당시의 의식음악은 인도나 중국적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었으리라 믿어 지나 고려시대가 되면서 불교가 대중화 되어감에 따라 전통적인 법배의 성행과 아울러 신라시대부터 있어 왔던 향가시 불교음악이 폭넓게 확산 되면서 불교음악도 정통국악의 정서를 담아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배부의 시대를 맞은 조선시대가 되면 상층사회의 불교는 명분상으로 소의 율수밖에 없었고 오랜 전통을 지니 왔던 불교는 민속화 해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불교음악은 화청(和淸) 등의 민속적 불교음악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고 정통적 불교음악이라 할 수 있는 법배(法排)도 정통적 국악과의 깊은 연관을 갖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순수 전통음악의 구성은 민속음악과 불교음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알게 된다.
예컨대 궁중음악이 국악화 함에 있어서는 불교음악으로서의 명상회상곡이 그에 참여 하지 않을수 없었고 다른 한편 명분상으로 불교를 배척하지 않을수 없었던 선비계층의 정서는 노래발을 유교적 내용으로 하였으나 음악적 정서는 불교음악의 성을 즐겨 가곡(歌曲)이란 음악형식을 불교적 정서로 성립시켜 나갔던 것이다.
다른 한편 판소리나 경·서도창 등의 노래발을 보면 불교적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불교의식의 의식문을 그대로 노래하거나 염불소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컨대 국악의 뿌리는 역사 이래 우리민족이 축적해온 민족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그를 계승 발전 시키는 전통적 기능을 불교가 담당 하여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교 국악과 설립의 의의는 이같은 국악의 전통계승에 불교음악이 어떻게 기능 하여 왔는가를 규명 하는데 중대한 사명감을 지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의 범주를 넘어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바탕위에서 본교 국악과의 교과과정이 설정되어야 하며 한편 그와같은 국악과의 운영은 한국불교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하리라 생각되어 기대 되는바 큰것이라 하겠다.
홍 유 식
(사범대 예교과 교수)

문화단신

◇ 통일유지력 '꿈꾸는 기자'



극단 '모시는 사람들'은 분단을 모르는 이들에게 분단을 이야기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통일이 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지를 '꿈꾸는 기자'를 통해 보여준다.
오는 10월28일까지 4시30분-7시30분/서울 소극장. 문의는 743-2801
◇ 새책 '범죄심리학'
본교 이상현 (경찰행정학) 교수의

저서 '범죄심리학' 개정판이 나왔다.

기존의 제1편 범죄심리학의 기초 이론, 제2편 범죄심리학의 구성과 분석, 제3편 범죄자의 임상심리에 탐색의 이상과 범죄, 유아기의 성격형성, 정신장애자 살인등의 내용을 보강, 범죄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상현지음/박영사/값 1만8천원

◇ '94 대한민국 종교음악제

종교음악제가 불교, 기독교, 평화 방송 공동주최하에 오는 13일 국립 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사람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3악장을 서곡으로 '꿈아길 40년', '국악미사', '무상계' 등을 연주하며 '아리아리'를 연함으로 할창한다.
오는 13일 7시/국립중앙극장 대극장

◇ 팬터마임의 제왕 '마르셀 마르소' 초청공연

17년만에 마련된 '마르셀 마르소' 초청공연은 '신기하고 우스꽝스러운'으로 인식해온 일반인들에게 팬터마임의 진수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의 작품세계는 사랑, 고뇌, 약함, 사회의 모순,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인된 작품은 '천지창조', '법정', '가면제작자' 등을 비롯 신작 '새잠이', '손', '작은 카페' 등이다.
오는 19-20일, 7시30분/호암아트홀/문의는 751-5555



17년만에 마련된 '마르셀 마르소' 초청공연은 '신기하고 우스꽝스러운'으로 인식해온 일반인들에게 팬터마임의 진수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의 작품세계는 사랑, 고뇌, 약함, 사회의 모순,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인된 작품은 '천지창조', '법정', '가면제작자' 등을 비롯 신작 '새잠이', '손', '작은 카페' 등이다.
오는 19-20일, 7시30분/호암아트홀/문의는 751-5555

NEW KOLON 2000

21세기 경제한국의 뉴리더—
코오롱의 미래를 펼쳐나갈
주역을 찾습니다.

국내 최초로 나일론 섬유를 개발하여 섬유보국의 기치를 들이며 출발한 코오롱—
이제 코오롱은 첨단 섬유산업은 물론 정보통신, 유통, 정밀화학,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에 대한 꾸준하고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21세기 경제한국을 이끌어 갈 뉴리더로서의 위치를 세계로, 미래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만큼 다가와 있는 경제한국의 주역—
코오롱의 미래는 바로 당신이 주역입니다.
코오롱으로 오십시오.
미래를 드립니다. 젊음을 주십시오.

보람의 일터—
코오롱

학생자치기구 선거일정 확정

총학 11월9·10일 투표

95년 각단위를 이끌어갈 학생회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장섭·독문4)가 지난날 30일 발표했다.

중앙위원 전원, 중앙위원 추천 1인씩, 집행국등 총20인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가 발표한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과대 선거는 10월6일 전체공교로 시작되어 12일에 후보자 등록마감이 있으며 19일부터 26일까지의 후보자 유세, 25일부터 28일까지 각 단과대별 선거로 마무리된다.

제27대 총학생회·총여학생회 선거는 27일 등록마감, 31일 공보(별정선거지) 시작, 11월1일 1차유세, 3일 2차유세, 7일 공청회, 8일 3차유세가 끝난 뒤 9·10일 양일간 전체투표가 실시된다.

총대의원회 선거는 오는 7일 후보자 공고를 시작으로 10·11일 후보자 등록마감, 12일 공보, 19·20일 선거

로 마무리짓는다. 이번 선거는 4개 투표지역으로 나누었던 지난해와 달리 7개 투표지역으로 증가했다.

학복위 복지장학금

학복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강희순·불교4 이하 학복위)는 지난 9월30일부터 오늘(6일)까지 복지장학금 지원자를 공개모집한다.

복지장학금은 예전의 우정장학금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이종수해자의 폐단을 막기 위해 학복위에서 1차, 각 단과대에서 2차심의를 한다.

한화과당 40만원을 지급하며 총 55개학과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장학금에 대해 조직사무국장 박대용(불교4)군은 "올해부터는 복지장학금을 단과대 학생회비로 쓰는 등 이종수해가 일러질 경우 전액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임 경주 교수회장 황순구 교수를 만나 "학교발전위한 총장선출위해 다각적노력 기울일터"



열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직 대의원을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히기 어렵지만 대의원이 구성되는 대로 교수 전체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학교의 발전이란 대의명분에 충실히 계획들을 실천하겠다.

-총장선출에 대한 입장은

=경주캠퍼스 교수회의 최우선과제는 총장선출에 있다고 본다. 학교의 발전을 위한 사람을 선출하기위해 교수회 역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부총장 선출에 관한 준비 상황은

=역시 대의원이 구성되어야 될 것이다. 이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준비에 들어 갈 것이며 20여명의 대의원 구성과 서울과의 합동대의원회이후 틀어 잡혀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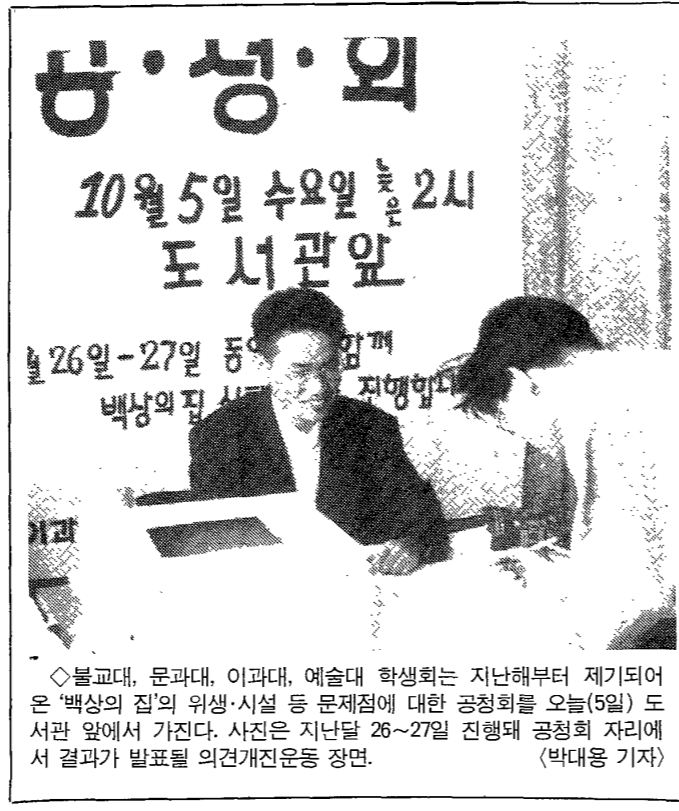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직원의 직분을 교수의 교수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단역시 재단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학교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금 이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교수회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밝힌다면

=교수회는 교수회장 혼자 온

(이민영 기자)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예술대 학생회는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온 '백상의 집'의 위생·시설 등 문제점에 대한 공청회를 오늘(5일) 도서관 앞에서 가진다. 사진은 지난달 26~27일 진행돼 공청회 자리에서 결과가 발표된 의견개진운동 장면. (박대용 기자)

민속무예 대제전

는 8일 오후5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총여 소식지 배포

제9대 총여학생회 (회장=김영은·사회4 이하 총여)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소식지 '자리찾기'를 배포한다.

학복복지위원회

학복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강희순·불교4 이하 학복위)는 오는 8일 오후 1시30분에 관해광장에서 민속무예대제전을 개최한다.

학복복지위원회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무예대제전은 중구예술제 가마행사에 포함되어있으며 경당, 백건, 한단회등의 시범과 태백무예 시범등 전문인들의 행사로 구성되었다.

한편 원명 허천우선생의 생황문 화강회 '우리민족과 선수련'이 오

제9대 총여학생회

(회장=김영은·사회4 이하 총여)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소식지 '자리찾기'를 배포한다.

두번째로 발행되는 이번 '자리찾기'

는 학술문화제 '통일과 구별'을 꿈꾸는 너에게'총령과 여성의 정치참여·여학생 운동론·총여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기획 및 총장 선거·동연공간투쟁을 위한 학내 쟁점화강회 '우리민족과 선수련'이 오

중구 예술제행사 대폭 축소 예술대 학생회장 사퇴

중구예술제의 행사가 대폭 축소되었다.

기존의 10여개 행사중 개막행사인 민속무예대제전, 개막축하공연 및 동국가축음악회등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들은 폐지되었다.

총학생회, 학교, 공관위, 단과대학생회등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기로 한 중구예술제 준비위원회는 행사의 의의, 기조에는 동의하나 명칭, 예산규모, 기획팀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등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구예술제의 행사축소 및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술대 학생회장 이종필(미술4)은 지난달 29일 사퇴했으며 예술대 학생회는 오늘(6일) 비상학생대표 자회의를 소집한다.

이종필군은 "예대가 준비하고 치뤄낸 주부미술대학을 단과대 단위 사업으로 축소시킨것은 중구예술제의 위상에 어긋나는 일이며 예술대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밝히고 "학생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사퇴이유를 설명했다.

모범이용자상 발표

중양도서관

중양도서관 (관장=김보환·경찰행정학)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모범이용자상과 모범봉사상 시상식을 오늘(6일) 총강실에서 가진다. 수상자는 △모범이용자상=구준서(전자공)군과 지봉숙(국민윤리3) △모범봉사상=김경호(영문3)군과 김혜정(영계2)양이다.

뿐만 아니라 한번씩 선정하는 이 모범상은 모범이용자상의 경우 1학기 동안의 도서대출권수가 상위인 학생중에서 자신의 전공서적과 교양서적을 많이 대출한 학생을 모범봉사상의 경우 근로 장학으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중 경력이 오래됐고 근면한 학생을 선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수여한다. 김중철 열람계장은 "학생들의 독

서의욕고취를 위해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 학생회 학술제 개최

제10대 대학원 학생회 (회장=윤기수·국문석사5학기)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학술제를 갖는다.

지난해까지의 학술제는 감사장을 초빙하여 감의를 듣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원생의 학술역량 강화와 학술인사 발굴, 대학원의 대중화를 위해 원생이 직접 참여하는 과별 주제발표로 바뀌었다.

△12일=동서철학에서 나타난 사유방법(철학), 한국영화론(한국영화학과) △13일=김일성 주석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김정일체제의 형성(정치학과) △14일=민간요법·침사용법(한의학과)

민심선수 KO패

○...추석전후 한국체육관에서는 열린 권투시합이 열려 세인의 관심이 집중. 챔피언 민심(民心)선수가 강력한 도전자인 인천 북구청 세금형권선수, 지준과선수, 택시연세살인선수들과 한꺼번에 시합을 벌이고 있다고.

앞선데 뒤편적으로 고전하는 민심(民心)선수에게 또 침안세 무서 세금형권선수와 교육청비리선수까지 뒤편게 가세했다고 이에 경기를 맡은 심판은 "민심(民心)선수상태를 보아하니 UR선수의 강력KO펀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TKO를 선언하면 되겠다"

대통령의 의무

○...대통령이 안전해야 국민도 편안한 거야. 그만큼 희생은 감수해야지" "다름아니라 대통령 전용 비행장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초 잡혀있었던 분당선 계획을 변경, 이로인해 비용증가는 분당 입주자들에게 각종 세금으로 전담되어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심정이라는데,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국민의 권리를 찾기전에 부당한 세금의 의무도 열심히 했듯이 대통령도 권리를 찾기전에 의무를 이행함은 어떨런지..."

백상예술제 폐막·각 단과대 행사줄이기

제26대 총학생회의 백상예술제

이 지난30일 폐막제를 끝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각 단과대 학술제 행사가 한창이다.

이과대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과의 단과대의 하나를 위한 7백여 이과인의 큰 잔치 '동리 한마당'을 연다.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일=한터 가꾸기(한타, 팻말 작성과 화단 만들기), 전통 찻집(과화관 앞), 개막제(대운동장, 문화공인, 노래 한마당등) △5일=백상의 집' 개선을 위한 공청회(오후 2시 도서관 앞), Flying egg(5시 명진관) △6일=축구·농구 예선, △7일=체육대회(대운동장, 공대 운동장, 명진관 축구장, 종목-축구, 축구, 농구, 피구), 폐막식(관해광장 오후 6시)

공과대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원홍인의 단결, 동악이 바뀐다' 패셔!란 슬로건을 내건 '원홍대동제'가 개최된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일=개막 퍼포먼스(원홍관 4층) △5일~6일=원홍인을 위한 야외 영화제(공대운동장, 5일-아버지의

제9대 총여학생회

(회장=김영은·사회4 이하 총여)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소식지 '자리찾기'를 배포한다.

두번째로 발행되는 이번 '자리찾기'

는 학술문화제 '통일과 구별'을 꿈꾸는 너에게'총령과 여성의 정치참여·여학생 운동론·총여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기획 및 총장 선거·동연공간투쟁을 위한 학내 쟁점화강회 '우리민족과 선수련'이 오

학복복지위원회

학복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강희순·불교4 이하 학복위)는 오는 8일 오후 1시30분에 관해광장에서 민속무예대제전을 개최한다.

학복복지위원회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무예대제전은 중구예술제 가마행사에 포함되어있으며 경당, 백건, 한단회등의 시범과 태백무예 시범등 전문인들의 행사로 구성되었다.

제9대 총여학생회

(회장=김영은·사회4 이하 총여)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소식지 '자리찾기'를 배포한다.

두번째로 발행되는 이번 '자리찾기'

는 학술문화제 '통일과 구별'을 꿈꾸는 너에게'총령과 여성의 정치참여·여학생 운동론·총여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기획 및 총장 선거·동연공간투쟁을 위한 학내 쟁점화강회 '우리민족과 선수련'이 오

학복복지위원회

학복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강희순·불교4 이하 학복위)는 오는 8일 오후 1시30분에 관해광장에서 민속무예대제전을 개최한다.

학복복지위원회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무예대제전은 중구예술제 가마행사에 포함되어있으며 경당, 백건, 한단회등의 시범과 태백무예 시범등 전문인들의 행사로 구성되었다.

제9대 총여학생회

(회장=김영은·사회4 이하 총여)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소식지 '자리찾기'를 배포한다.

두번째로 발행되는 이번 '자리찾기'

는 학술문화제 '통일과 구별'을 꿈꾸는 너에게'총령과 여성의 정치참여·여학생 운동론·총여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기획 및 총장 선거·동연공간투쟁을 위한 학내 쟁점화강회 '우리민족과 선수련'이 오

이름으로, 6일-서편제) △7일=원홍 운동회(관해광장, 종목-여학생 발아구, 교수님과 소프트볼, 열전 달리는 원홍인등), 폐막제인 원홍인 한마당(공대 운동장, 2부에 걸쳐 진행), 식전행사인 내가 최고 원홍인(공대 운동장, 종목-맥주발라드마시, 동전쌓기, 팔씨름등)

단위행사로는 △환경문제

관련 비디오영상(화공과, 5~6일, E204) △복지 어린이및 장애자 지원을 위한 주점(화공과, 4~6일) △전통차 판매(산공과, 공대 4층앞 4~6일) △화제의 운영 발전에 대한 공청회(공대 사회과학회 연합, E102 5일 5시)등이 있다.

동아리연합회

오늘(6일)부터 오는 7일까지 화교곳곳과 녹두4거리에서 '열린동연제'를 개최한다.

1년간의 동아리사업을 총회하고 전통악인과 지역구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는 의의를 가지는 '열린동연제'는 동연설립 10년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행사내용으로는 오늘(6일)부터 7일까지 열린거리제 전시회가 후문에서 학생회관까지의 거리에서 열리고 오늘(6일)오후 4시에 동아리예쁜발라드 대회가 열리며 오후2시 중강당에서 정운영(한겨레신문)은 설위원)씨의 강연회 '시대인식을 지녀야 할 대학인의 삶'이란 제목의 강연회가 열린다.

내일(6일)오전10시부터 범용아리인 체육대회가 열려 8개분과가 참가,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7일 오후3시에는 학생회관 앞에서 출발하는 원홍발라드 대회가 열린다.

오는 7일에는 폐막제-녹두거리 대축제가 오후5시에 열린다. 유홍향락의 거리로 변질되는 녹두거리의 현실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개최하는 녹두거리제는 1부-중구의 미래를 위한 고사, 2부-분교학생·주민가요제, 3부-동아리공연 및 지역문화공연, 4부-폐막식 및 대중놀이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져 있다.

동국이 하나되는 그날! '94 백상대동제

일시: 10.10~10.14

10월12일 무로공연
권인하의 작은 음악회
오후 6시, 문무관(체육관)

10월13일
개막식 오전10시
Rock Joint 오후 3시

10월14일
오래달리기 오후 3시30분
폐막식 및 시상식 오후 5시

규정종목
축구·야구·발아구
배구·줄다리기·400m 릴레이·100m
남녀 오래달리기

번외경기
림보, 제기차기 여자팔씨름

동국대학교 제11대 총학생회

